

향토사 대중화 사업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향토사 여행



일시 : 2012. 5~11

장소 : 양양관내문화유적지 및 축제장

주최 : 한국문화원연합회 · 양양문화원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향토사 여행





Contents

발간사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	4
사업소개 -----	6
활동시간표 -----	7
양양의 문화유적 및 축제	
• 현산공원 -----	9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	21
• 현산문화제 -----	36
• 향교 -----	41
• 낙산사 -----	46
• 송이축제 -----	53
• 연어축제 -----	55
특강 (이규대 강릉원주대 교수) -----	57



발간사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향토사 여행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본제국주의의 암울한 식민지하에서 독립의 일념으로 일제에 항거하였던 선열들의 넋을 추모하면서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가” 시를 되새겨 봅니다.

이시는 1926년 <개벽(開闢)>지에 발표된 시로서 일본은 이 시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개벽 지를 폐간시켰습니다.

작가의 반일(反日) 민족의식을 표현한 작품으로 ‘비록 나라를 빼앗겨 얼어있을 망정 봄이 되면 우리에게 민족혼을 일으킬 봄은 빼앗길 수 없다’는 강력한 저항의식을 담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명시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민족은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암울한 식민지의 수모도 겪어야 했었고, 거기에 더하여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6.25를 겪고 오늘도 민족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전전긍긍하며 살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된 역사가 미화되고 부끄러운 기억들이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으며 이것은 역사를 모르고 반성하지 못하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일깨워 주고 민족혼을 심어주어야 국제화 시대에 당당하게 세계의 젊은이들과 경쟁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늘 고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문화원 연합회의 지원으로 향토사 대중화사업으로 실시하게 된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향토사 여행”은 참으로 소중한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선조님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국가관과 향토애를 심어준데 대하여 많은 느낌과 감동이 있었다는 학생들의 보고서를 보면서 매우 기쁘고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청소년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느낀 소감을 담은 보고서를 수록하여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하면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신 강릉원주대학교 이규대 교수님과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여러분, 양양중고등학교 김형식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지도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향토사 여행”지가 좋은 자료로 널리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2012년 12월

향토사 대중화 사업

1. 사업명 :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향토사 여행

2. 사업 추진방향 및 목적

- ◆ 핵심키워드 : 우리지역의 향토문화유적을 배우러 떠나는 여행~~
- ◆ 사업목표 : 양양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알고, 선조들의 전기를 이어받아 미래의 일꾼으로 양육하고자 한다.
- ◆ 해설사를 통해 문화유적을 탐방하면서 우리지역 역사와 문화를 배움으로써 문화 유적의 특성을 알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배우고 익히며, 사진자료와 내용, 자신의 생각을 담은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자를 발행한다.

3. 사업내용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해설사를 통해 우리 조상의 얼과 빛나는 슬기에 대해 배우며 과거의 역사를 오늘에 이어 조상의 숨결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적을 더욱 잘 알고 사랑하며 보호하는 것을 배운다.

- ◆ 기 간 : 2012년 5월 ~ 11월
- ◆ 장 소 : 양양군관내 문화유적 및 축제장
- ◆ 대 상 : 양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 ◆ 해 설 : 김기수, 김선래, 손찬호, 엄태식, 이은자, 한창순, 홍창해
- ◆ 특 강 : 이규대(강릉원주대 사학과 교수)
- ◆ 내 용 : 학생들이 봉사활동시간을 활용하여 1달에 2회 관내 사적지, 국보, 보물 등을 찾아 해설사를 통해 자세하게 우리의 문화재를 배우고 익히며,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자를 발간하여 좀더 쉽게 우리의 문화재를 이해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4. 활동시간표

◆ 분 야 : 역사

◆ 교육 대상 : 양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 강 사 명 : 이규대, 이은자, 김선래, 손찬호, 홍창해, 한창순, 엄태식, 김기수

번호	월/일	장소	수업 시간	목표	교육내용	비고
1	5/3	현산공원	13:00~15:00 (엄태식)	3.1만세운동이 우리에게 미친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애국애족정신과 호국	70명 기숙생
2	5/9		14:20~16:10 (엄태식)	영향	정신을 배운다	100~110명 2학년전체
3	5/25	오산리선사유적 박물관 (사적제394호)	09:30~11:20 (김선래)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 문화의 전	오산리신석기유적지 발굴조사과정,유적등	110명(소풍) 1학년전체
4	5/30		14:20~16:10 (김선래)	반적 흐름	관람	109명 2학년전체
5	6/8	제34회 현산문화제 전통민속놀이 체험 (널뛰기, 윷놀이, 목침 뺨기 등)	09:00~11:00 (홍창해)	우리지역의 민속 놀이파악	축제와 접목하여 우리 지역민속놀이를 알아 보고 체험해보기	만세운동참여 학생(봉사활동) 40명 (4사회원)
6	6/9		10:00~12:00 (김기수)			
7	7/11	향교 (도문화재자료 제105호)	14:20~16:10 (손찬호)	우리지역 유교교육과영향	향교창건연대, 목적, 건물 견학	100명
8	7/18					2학년전체
9	9/12	낙산사, 의상대칠층 석탑, 홍예문, 사리탑, 담장등 (도유형문화재 제 33,34,35,36,48호, 보물제499,1362호)	14:20~16:10 (이은자)	우리나라 불교문화 범종양식등 파악	낙산사에 있는 도유형문화재 견학	110명 2학년전체
10	10/4	송이축제 및연어축제	15:00~17:00 (이은자,한창순)	우리지역 특산품 및 음식 문화알기	송이, 연어, 낙산배등 지역의 특산품을 알아 보고 어떤음식들을 만 들수있는지알아보기	100명
11	10/27		09:00~11:00 (한창순)			60명 기숙생
12	11/1	우리지역 문화재 조 사자료 정리	14:10~16:10 (이규대)	지역의 문화재 및 특산품등을 알아보고 체험한 것 정리	3.1운동기념비,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낙산 사, 관내축제 참가등 을통해배운것정리하 여 여행복정리	100 2학년



양양의 문화유적 및 축제

- 현산공원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 현산문화제
- 향교
- 낙산사
- 송이축제
- 연어축제

현산공원

주소 :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 일시 : 2012.5.3(목) 14:20~

◆ 참석자 : 양고 기숙생 70명



현산공원

옛날에는 현산 서쪽에 갑팔루와 현산정의 두개 정자각을 세웠는데 장구한 세월이 흘러 그 정자각은 자연 파괴되고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현산공원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면 앞에는 산봉우리가 차례로 줄지어 서 있고, 그 밑으로 수류 100리의 남대천이 동해로 흐르고, 동으로는 오산봉이 해문을 막고 있으며, 서로는 운연이 깊은 오색약수, 북에는 설악의 대청봉이 우뚝 솟아 있다.





1. 행정수복기념탑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자 미(美)·소(蘇) 양군은 임의로 38° 선을 긋고 남한은 미군이 북한은 소련군이 분할 점령하여 군사정치를 하게 된다. 북한 공산정권 통치로부터 수복된 양양은 남한 군정이 시작되었고 행정권이 군(軍)에서 민간행정으로 완전히양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2. 충훈탑

일제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순국한 독립열사와 38° 선에 의해 양양이 북한 공산정권 통치하에 있을 때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반공애국지사, 한국전쟁 당시 복진 중 순국한 양양출신의 군경과 월남전에서 전사한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1966년 현충일에 현산공원에 건립하였다.



3. 필승탑

한국전쟁 당시 국군 제1군단의 부군단장이며 제29사단장이면서 ‘태권도’ 정식명칭을 만든 최홍희(崔泓熙) 장군이 복진 통일을 기약하고 통일의 신념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직접 쓴 ‘必勝’을 새겨놓은 탑이다.



4. 3·1운동 기념비

1919년에 있었던 양양지역의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5년 동아일보사와 양양군민 협찬회가 건립한 비(碑)이다. 1919년 4월 3일 일본 경찰들에

발각되어 임천리에서 22명이 체포되고 태극기 수백 매가 압수되었다. 하지만 4월 4일 양양장날을 기하여 수천 명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벌였으며 4월 9일까지 각지에서 있었다.

체험학습보고서

2012/5/3(목)

● 심영석 (2-2)

장 소 현산공원

제 목 양양 3·1운동의 역사

우리 고장 3·1운동의 역사를 알기 위해 양양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체험학습에 참가하게 되었다. 현산 학사 1학년생과 2학년생 모두 현산공원으로 출발했다. 현산공원에 3·1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 충혼탑 등이 있었다. 양양 문화 가이드 선생님께서 설명 해 주셨다. 자세한 설명 덕분에 양양 3·1운동이 얼마나 힘을 모아 실천 한 것인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였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양양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많이 느꼈다.

느 낀 점 우리 고장의 역사를 알게 되어서 자부심을 느꼈다.

아쉬운점 비가 내려서 많이 아쉬웠다.

● 이상일 (2-4)

장 소 현산공원

제 목

3·1운동 역사와 독립 투사에 대한 내용을 듣고

우리는 오늘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산공원에 가서 3·1 운동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 되었다. 우리 고장 양양에서는 한달 뒤인 4월 3일 독자적으로 일으켰다고 한다. 왜 4월 4일날 3·1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냐면 4일은 우리 양양의 전통시장이 열리는 장날이어서 이때 일으켰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듣고 우리는 충훈탑으로 장소를 이동하였다. 하지만 그 때 빗방울이 점점 굵어져 교육을 일찍 끝내게 되어 아쉬웠다.

느 낀 점

우리 양양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1운동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아쉬운점

비가 와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아쉬웠고 다음에는 날씨가 좋을 때 가서 제대로 듣고 싶다.

● 양득모 (1-2)

장 소 현산공원

제 목

양양의 숨은 역사들

4월 4일 3·1운동을 계획했지만 4월 3일 발각되어 독립열사 22명과 태극기 수백매가 압수당함. 시험이 끝난 뒤 현산공원에

가서 우리는 양양의 숨겨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양양 지역은 강원도에서 가장 큰 3·1운동이 벌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4월 4일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던 양양 군민들은 4월 3일 안타깝게도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어 22명의 독립 열사분들과 수백매의 태극기가 압수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그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은 성공적으로 3·1운동을 하였다. 그 밖에도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반공지사 100분들도 돌아가셨고 월남전쟁의 참전용사 187분도 돌아가셨다고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 하셨던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추모비가 세워져있다.

느 낀 점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옛날의 양양 군민 분들을 생각하며 고향을 자랑스럽게 여겨야겠다.

아쉬운점

비가 와서 끝까지 설명을 듣지 못한게 아쉬웠습니다.

● 유진호 (1-4)

장 소 현산공원

제 목 3·1운동과 양양

3·1운동은 1919년 서울에서 시발되어 일본군에 의해 억압되었다. 이후 한달 후 우리 고장 양양의 “만세공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 다시 일어난 바가 있다. 그리고 그날을 기리기 위해 양양에서는 4월4일마다 양양독립운동 기념일을 기린다고 한다. 이 날은 양양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양양 전통 5일장에 맞춘 것이라고 ‘엄태식’ 관광문화 가이드 선생님께서 설명 하셨습니다. 나의 외조부모님의 산이 그 곳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지날 경험이 많았다. 이러한 위대한 ‘령’ 이 양양에 깃들어 있다는 점에 나는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

느 낀 점

양양인의 정신과 일본에 대한 분개로 인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이 느껴진다.



현산공원

주소 :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 일시 : 2012.5.9(수) 14:20~

◆ 참석자 : 양고 2학년 100명



체험학습보고서

2012/5/9(수)

● 김수용 (2-1)

장 소 현산공원
제 목 양양과 역사

창의적 체험 활동시간을 갖는 수요일 오늘 2학년 친구들 모두와 학교 앞에 위치한 현산공원에 올라가서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에서 3월1일 운동이 시작되어 양양에서도 운동을 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그러나 만세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 날 일본인들에게 발각되어 태극기를 빼앗기고 22명의 사람들이 순국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남한이 북진 통일을 진행하면서 한 장군이 이 곳 양양 현산공원에 필승이라는 한자가 세겨진 비석을 세운 이야기였다.

느 낀 점 일본 치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곳곳한 기상을 보여 준 양양의 위인이 멋있어졌고 나도 나중에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쉬운점 뒤에서 설명을 듣지 않고 떠드는 아이들 때문에 설명해주시는 분께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설명도 잘 들리지도 않은 것이 아쉬웠다.

● 김태민 (2-1)

장 소 현산공원

제 목 독립(양양 현산공원)

우리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과 일제에 탄압 받던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 대해 또 한번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독립에 힘쓰신 위인들에 대하여 존경

심을 느끼게 되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처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독립을 위해 힘써 준 위인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중에 일제와 같은 일이 또 한번 일어나게 된다면 독립을 위해 힘 쓸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느 낀 점**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 준 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 아쉬운점** 자료가 많이 부족했고 가이드 분의 목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아 많이 아쉬웠다.

● 안재수 (2-3)

- 장 소** 현산공원
- 제 목** 3·1 운동이 양양에서도 일어났다?
3·1 운동이 양양에서도 일어났다고 한다. 서울에서 3월 1일에 운동이 일어났고 그 후 약 한 달 뒤에 4월 4일에 양양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이 운동이 끝이 난 후 각 시·군에 현충탑을 세워 기념하였다고 한다. 현충탑에는 각 운동가들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다고 하여 과거 조상들이 묵념을 하곤 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나와 같이 간 친구들은 5초간 묵념을 한 후에 현산공원을 한 바퀴 둘러 보고 학교로 귀가 하였다.
- 느 낀 점** 한양인 서울뿐만 아니라 양양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기에 양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고 묵념도 해 보아서 다시금 애국심을 불태웠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아쉬운점 안내원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내용이 자세히 안들리고
우리 학생들이 부주의해서 강의를 효율적으로 못 들었던 것
같다.

● 황을규 (2-3)

장 소 현산 공원
제 목 현산공원 탐방
현산공원은 자연과 충분히 어울려 양양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
하고 있고 3·1 운동으로 인해 동상과 탑을 세웠고 양양의 중
심에 위치하여 과거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시민들의 휴식
처로 벚꽃이 많이 피어 봄이되면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다.
동상을 보면서 현산공원의 역사를 알 수 있어서 무척이나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최근에 들어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고
오래 된 것들도 재정비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현산공원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한다.

느 낀 점 현산공원의 역사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많았는데 이
번 계기로 인해 적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나마 현산공원에 대해
알 수 있어서 가까이 있는 만큼 우리문화에 대해 잘 알 수 있
었다.

아쉬운점 현산공원이 무슨 이유로 생기게 되었는지 현산공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설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 송성재 (2-4)

장 소 현산공원

제 목 3·1운동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4월달에 양양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경찰서 앞에서 시작 된 운동은 수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다. 이를 추모하기 위해 현산공원에 많은 조각들이 있었다. 지나가면서 보던 동상에는 오른손엔 호미, 왼손으로는 땀을 닦아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후에 군수님께서 현산공원에 기념탑을 만들었다. 또 이 탑 옆에 ‘필승’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여러토막으로 된 비도 있었다. 우리 모두 3·1운동과 6·25의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끝이 났다.

느 낀 점 양양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았고 그저 공원으로만 알았던 현산공원의 비밀을 알게 되어 놀라웠다.

아쉬운점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 듣기 불편했다.

● 이상일 (2-4)

장 소 현산공원

제 목 3·1운동에 대한 역사를 듣고

오늘 우리 2학년들은 현산공원에 3·1운동 역사에 대한 내용을 들으러 갔다. 우리 양양군은 3·1운동이 일어난 뒤 한달 후 1919년 4월 4일에 양양군 경찰서 앞에 모여서 일으켰다고 한

다. 다음 장소로 우리는 이동하였다. 가면서 독립문 기념탑을 보았다. 충혼탑에서 우리는 다른 설명을 들었다. 순국 열사 22 명이 일본 형사들에게 잡혀서 태극기와 총을 빼앗기고 많은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그 설명을 듣고 정말 처참했던 그 모습이 상상 되어 슬펐다. 거기서 설명이 끝나고 묵념을 하고 학교로 돌아왔다.

느 낀 점 날씨도 좋지 않고 벌레도 많았지만 3·1운동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듣고 싶다.

아쉬운점 날씨가 좋지 않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던 것이 아쉬웠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주소 :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51

◆ 일시 : 2012.5.25(금) 09:30~

◆ 참석자 : 양고 1학년 110명



양양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사적 제394호)

1977년 오산리 호수(쌍호)를 매립하기 위해 토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신석기유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유물이 약 8,000년전의 연대로 파악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신석기 유물은 집의 형태와 그릇, 사람 얼굴을 상정한 예술품들이었는데 이곳 양양 오산리에 신석기 때부터 선조들이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고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와 동아시아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명되었다. 시설은 두 개의 전시실과 사회교육실, 사무실, 학예연구실, 수장고 등이 있으며 야외에는 신석기시대 문화를 실감할 수 있는 야외체험장과 선사유적 탐방로, 움집 등이 있다.



● 고성관 (1-3)

-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 제 목**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 토기의 순서 : 누른무늬토기→덧무늬토기→빗살무늬토기 등의 순서로 발달 굽거나 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보고 잘 되게 해달라는 의미로 안면상을 만들었음. 약 400여 점의 유적 발굴, 오산리 선사인이 가장 쉽게 구할수 있는 것은 '도토리'였다.
- 돌자귀 : 나무를 깎아 다듬는데 사용/가락바퀴 : 물레로 실을 자를 때 쓰이는 가락
- 빗살무늬토기 : 기원전 4500년 무렵에 바닥이 뾰족한 모양의 토기
- 누른무늬토기 : 기원전 4000~3000년 수렵에 아가리 주변에 만 무늬를 새긴 토기
- 느 낀 점** 우리나라의 과거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아쉬운점** 조금 피곤한 때 와서 집중이 안됐음.

● 이용준 (1-2)

-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지
- 내 용** 토제인면상은 오산리선사유적지에서 출토된 흙으로 빚은 얼굴

상은 가로 4.3cm, 세로 5.0cm 가량의 작고 둥근 점토판을 손가락으로 눌러 사람얼굴 모양을 표현한 것을 풍요를 기원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기 신상의 하나로 그 가치가 높다. 그리고 오산리에서 발견된 흑요석은 가공이 자유로워서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날을 만들 수 있어서 구석기인과 신석기인들은 먼거리를 이동하거나 교역에 이용했다.

신석기시대의 토기는 덧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가 대표적이며 덧무늬토기는 겉면에 진흙띠를 붙이거나 맞접어 돌게하여 무늬를 만들고 빗살무늬토기는 빗모양의 무늬새끼개로 토기의 겉면을 누르거나 그어서 각종 기하학적 무늬를 새긴 토기이다.

느 낀 점 아쉬운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우리조상의 생활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없어 많이 둘러보지 못했다.

● 박윤동 (1-2)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지
제 목 오산리를 다녀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토기→누른무늬토기이고(아가리는 순수우리말) 이곳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사람얼굴, 돌기구, 면상) 신석기 사람들은 강이나 바다 주변에서 움집을 짓고 정착생활을 하였다. 신석기 시대 8000년전에 흑요석이 많이 나올 신석기 시대의 식량 생산은 주로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였으며 토기류(빗살무늬, 덧무늬)와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가 대표적인 유물이다. 신석기시대의 토기의 종류에는 강원영동지역의 빗살무늬토

기, 누른무늬토기, 덧무늬 토기가 있다. 또 발견된 흑요석은 거의 백두산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기원전 8000년무렵 고기잡이를 시작하였고 야생식물인 도토리
리는 신석기시대의 주된 생계수단 중 하나였다.

느 낀 점 중3때 역사시간에 배웠던 선사시대의 도구나 수집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책에서만 글로 보다가 사진으로 보니 백문이 불여일견이었다.

아쉬운점 강의를 너무나 듣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떠들어서 강사님이 힘들게 강의하시고 잘 들리지 않았다.

● 최진호 (1-2)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제 목 오산리 유적지

8000년전부터 여기에 인간이 살았다는 걸 보여준다. 1977년 개척을 하면서 14개의 움집터가 발견되었고 식기가 발견되었다. 주로 이사람들은 신석기에 바다 또는 강에서 생활을 하였다. 이사람들은 움집을 짓고 토기를 만들었다. 토기가 만들어진 순서는 누른무늬가 만들어졌고 좀더 발달하여 민무늬와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졌다.

신석기에는 먼거리에서도 사냥이 가능한 활과 화살을 이용하였다. 주로 사슴을 많이 잡았고 뿔등으로 생활도구를 만들었다. 도토리도 신석기 시대에 중요한 식물자원임을 알 수 있다. 선사시대 도구는 결합식어구, 어망추, 돌촉화살촉, 돌도끼 등이다.

청동기로 오면서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루어진 금속은 인류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른 기술의 진보와 향상은 생산력 향상, 사회분업 교역의 중대함을 가져왔다.

느 낀 점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살아왔다는 것에 자랑스러웠고 내가 모르던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아쉬운점 볼 것은 많은데 직접 물건을 사용할 기회를 체험할 수 없는게 많아 아쉬웠다.

● 이일권 (1-1)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제 목 오산리 선사유적지에서 발견된 물품들

14개의 움집과 사람 얼굴등을 포함한 400여 가지의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토기 중 누른무늬토기가 가장 먼저 탄생하였다. 풍요와 다산을 기리는 토제인면상이 발견되었다. 서해안 지방에서 많이 보이는 어망추와 결합식 어구형태가 출토되었다. 도토리 화석이 발견되어 도토리는 신석기시대에 중요한 식물자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흙으로 빚은 얼굴상인 토제인명상은 가로4.3cm, 세로5.0cm의 작고 둥근 점토판을 손가락으로 눌러 사람 얼굴모양을 표현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어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청동기시대에는 민무늬토기가 등장하는데 초기 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용되었다. 백두산 주변의 것인 흑요석이 발견되었다.

느 낀 점 어렸을 때 몇 번 와서 무엇이 있는지는 알았지만 이번에 오니 좀더 자세히 보게 되었고 국사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체험인 것 같다.

아쉬운점 이동경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보는데 좀 복잡해서 아쉬웠다.

● 이형섭 (1-1)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제 목 오산리선사유적

1977년도 농경지를 개간하다가 14개의 움집터가 발견되었고 그밖에 사람얼굴, 돌창, 돌검이 발견되었다. 신석기 시대에 바다에서 또는 강가에서 어로 생활을 하였으며 기원전 8000년경 정착생활을 하기 위해 움집을 지었다. 또 바다에 살면서 사용하기 위한 토기를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토지는 누름 무늬토기가 있다. 점차 발전하여 민무늬토기와 빗살무늬토기가 만들어졌다. 또한 점토를 눌러만든 토제인면상이 있는데 풍요를 기원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때에는 벼농사가 아닌 조,기장을 수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제1토지층에서는 흑요석이 발견되었는데 가공이 자유로우며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날을 만들 수 있어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신석기시대에 의류가 생성되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으로 가락바퀴가 있다. 가락바퀴는 실을 만들 때 나무나 쇠를 끼워 그 회전을 돕는다. 청동기 만드는 과정은 용액만들기, 거푸집에붓기, 날세우기, 손질하기가 있다.

- 느 낱 점** 양양에 살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양양의 선사유물들을 알게 되어 새로웠다.
- 아쉬운점** 더 시간이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일정이 빡빡하다보니 자세히 보지 못했다.

● **이충호 (1-1)**

-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 내 용** 양양에 선사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 약 4000여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빗살무늬토기가 다들 제일 먼저 생성된 토기라고 알고 있지만 누름무늬토기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 누름무늬토기는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만들었다고 한다. 오산리 선사유적지는 약8000년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석기 유적으로 확인되어 1997년 사적 제394호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선사유적지 박물관에 들어가니 토기제작과 수렵생활 그리고 채집생활, 어로생활 등을 인형들을 통해 자세하게 엿볼수 있었다. 또 사냥에 사용했던 무기와 물고기에 썼던 바늘 등을 보았는데 신석기 사람들의 생활을 상상할 수 있었다.
- 느 낱 점** 선사시대에는 여럿이 무리를 지어 생활했으며 간단한 도구들로 식량과 사냥을 했으며 각자 분담을 하였다. 우리생활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 아쉬운점** 더 자세히 보고 싶었으나 박물관에 선사유적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 송울범 (1-1)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제 목 오산리 선사유적지 관람후기

최초의 토기는 누름무늬 토기이다. 움집 주변에서 어구를 손질하고 야외노지에서 사냥한 멧돼지와 어패류로 음식을 준비하여 의복을 준비하는 모습이 신석기시대의 일반적인 생활모습을 나타내준다. 오산리 선사인들은 채집을 통해 각종 나무 열매와 뿌리등에서 식물성 식량을 얻었고 사냥을 통해 사슴과 멧돼지, 토끼 등과 같은 동물성 식량을 얻었다. 오산리에서 발굴된 잠자리의 가장 일반적인 크기는 18㎡정도였다. 움집은 지상가옥의 형태이며 내부에는 강돌을 네모나 둥글게 돌려서 만든 화덕자리가 놓여 있고 집자리 바닥 가장자리에는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느 낀 점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래된 유적이 있는줄 몰랐다. 박물관을 와서 더욱더 석기시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아쉬운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아쉬웠다.

● 윤지민 (1-3)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제 목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을 다녀와서

8000년 전에 발견되었다. 움집이 발견되고 돌을 갈아서 사용하였다. 주로 해변과 강에서 살았으며 활과 화살을 이용했다.

오산리에서 발굴된 집자리의 크기는 9~49㎡이었으며 가장 일반적인 크기는 18㎡이었다. 닳은무늬토기와 토제인면상이 발견되었다. 흑요석은 화산암의 일종으로 용암의 분출에 의해 생성된다. 양양오산리에서 발견된 흑요석은 백두산 주변의 것으로 보인다. 신석기 시대 때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썼는데 결합식 어구, 어망추 등이 있다. 신석기 시대에는 사슴, 멧돼지 등 중소형 짐승과 날짐승을 사냥하게 되면서 사냥도구와 기술이 발달하였다.

느 낱 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알게 되었고 무슨 도구를 만들어 썼는지 어떤 도구로 사냥했는지 잘 알았다.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아쉬운점 더 넓었으면 좀 더 많은 종류의 도구, 화석등을 가져 놓을 수 있었을텐데 좀 좁다는 것이 아쉬웠다.

● 장장규 (1-4)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내 용 소풍을 통해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에 들리게 되었다.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은 약 8000년 전의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적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석기 시대 때는 수렵생활과 어로생활을 했던 것이 유물들로 나타나 있으며 음식을 저장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유물들로는 닳은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돌톱, 결합식 낚시바늘, 흑요석, 토제인면상 등이 있는데 닳은무늬토기는

띠모양의 흑을 덧붙인 토기이다. 빗살무늬토기는 빗살무늬를 새긴 토기이고 돌톱으로 나무를 잘랐으며 결합식낙시바늘을 통해 어로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흑요석으로 고기를 잘랐다. 흑요석은 화강암의 일종으로 원산지마다 구성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간 문화교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흑으로 빛은 얼굴상인 토제인면상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다고 한다.

느 낀 점 잘 몰랐던 신석기 유적에 대해 더 깊게 알 수 있었고 사회자의 퀴즈덕분에 더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어서 유익했다.

아쉬운점 시간이 부족하여 다시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 황광규 (1-4)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제 목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신석기시대에 주로 수렵, 채집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토기류와 간석기가 대표적인 유물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 초가집이 등장 땅을 파고 지은 움집에 화덕을 설치해서 음식을 조리하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돌과 뼈를 쪼갤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날을 이용하였던 구석기인들과는 달리 돌과 뼈를 원하는 형태로 잘라 사용하였다. 쌍호에서 어로 생활을 하며 다양한 식량자원을 얻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에는 토제인면상이 유명한데 가장 오래된 초기 신상의 하나라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느 낀 점 옛날부터 지혜롭고 신기하게 생활하였다는 점에서 놀랐다. 그

리고 양양에서 최초로 발견되어서 정말 좋았고 많은 유적들과 그 당시를 재현하여서 좋았다.

아쉬운점 아직 구경할게 많이 없어서 아쉽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김영훈 (1-4)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제 목 체험학습 활동일의 일상

박물관에 들어가기전 상품을 걸고 퀴즈대회를 하여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박물관에 들어온 후 시작에는 시대의 역사가 표로 정리되어 있으면서 각각문화에 설명과 그림이 있어 비교로 인한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중앙으로 가면 모형으로 만든 구석기, 신석기 등의 선사시대의 생활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알 수 있다. 물고기도 예를 들면 처음에는 맨손, 그다음은 창, 그다음은 어망 등으로 더욱더 지능이 발달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시실에는 토기, 무기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전시되어 있는데 복원된 것도 있고 조각난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철의 발견 과정과, 제련 그리고 사용방법과 유적이 있었다.

느 낀 점 인간의 진화과정과 사람들이 생각하여 더욱더 편안해지려는 욕구가 느껴져 원주민도 역시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아쉬운점 너무 많이 와서 보는 것과 설명들이 너무 지루하였다.

● 김성윤 (1-4)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제 목 선사시대 신석기인들의 모습

신석기시대의 식량생산은 주로 수렵과 채집, 토기류가 대표적이다. 쌍호는 오산리 신석기인들의 어로생활 터전으로 식량자원을 지원해주는 호수였다. 오산리 신석기인들은 서해사람들과 달리 조개류도 먹기 어렵고 적응하기 힘들었다. 신암리에서 출토된 인물상은 커다란 유방과 잘록한 허리의 여성상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지모신으로 추정된다. 신석기 시대에는 활을 이용한 사냥을 하고 사슴을 가장 많이 사냥하였고 가죽과 뼈, 뿔 등이 각종생활도구로 이용됐다. 움집자리크기는 9~49㎡이고 지름은 6m정도의 지상가옥이다. 토기는 인간이 흙과 불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최초의 발명품이다.

느 낀 점 오산리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게 신기하고 대단하다. 양양지역에 이렇게 역사있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와보니 대단하다.

아쉬운점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유물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아쉽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주소 :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51

◆ 일시 : 2012.5.30(수) 14:20~

◆ 참석자 : 양고2학년 109명



체험학습보고서

2012/5/30(수)

● 양득모 (1-2)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제 목 신석기시대를 엿보다.

학교에서 수요일마다 있는 6,7교시 창체시간을 오늘은 버스를 타고 오산리에 있는 선사유적 박물관에 왔다. 도착하자마자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해설사에게 신석기 시대의 생활과 그 시대에 쓰였던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설명이 끝나고 관람을 시작하였다. 신석기인들이 낚시를 하는 모습, 동물을 잡아서 굽는 모습, 토기를 만드는 모습 등 신석기인들이 살았다고 하는 움집과 그 당시 사용되었던 빗살무늬토기, 덧무늬토기 등을 관람하였다.

느 낱 점 그 옛날 신석기 시대에 양양이라는 곳에서 처음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신기하였고 문자가 없을 당시 그림으로 기록을 남겼다는 발상이 대단한 것 같다.

아쉬운점 가까우면서도 쉽게 올 수 있는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이지만 다소 관람시간이 유적의 수 때문에 짧다는 것이 아쉽다.



● 황을규 (2-3)

장 소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제 목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2012.5.31(수) 6,7교시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으로 체험을 갖

다.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다면 토제인면상과 빗살무늬토기, 민무늬토기, 흑요석 등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석기, 신석기 유물들이 많았다.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은 중학교때나 초등학교때 많이 다녀봤지만 고등학교때 와서는 처음으로 방문했다.

고등학교때 방문해서 그런지 중학교때나 초등학교때는 그냥 훑어보고 지나가기만 했지만 고등학교때 와서 보니 배운 것도 많이 있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 되고 좀더 깊이 알 수 있었다.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은 양양에 한곳뿐이라 양양에서만 볼 수 있는 무척이나 좋은 박물관이 되었다.

느 낀 점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은 어릴 때도 많이 다녀왔지만 고등학교 때와서 보니까 새롭게 느껴졌고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으로 많은 문화재나 유물을 새로 발견하여 전시했으면 좋겠다.

아쉬운점

좀더 넓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현산문화제

주소 : 양양남대천둔치 현산문화제행사장

◆ 일시 : 2012.6.8(금) 09:00~ ◆ 참석자 : 양고 만세운동참여 학생 110명



현산문화제

- 축제일시 : 매년 단오전후 3일간(2012.6.7~6.9)
- 축제장소 : 남대천둔치 및 부대행사장
- 축제문의 : 양양군청문화관광과 033-670-2728
양양문화원 671-8762



고려 목종 10년(1007년) 현재의 양양읍 성내리를 중심으로 양주성을 축성, 외적의 침입을 수호하는 기지로 삼고 순국영령 위로와 국태민안, 풍년을 기원하는 장군성황제를 지냈는데 그 제례의식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으며, 양양에서는 매년 단오를 전후하여 ‘현산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례행사와 전야제, 각종 민속놀이 등으로 온 군민이 참여하여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을 전승하는 뜻 깊은 문화행사인 ‘양양현산 문화제’는 전통과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양양군민의 신명나는 화합의 축제로 양양문화원이 주관하여 금년 34회째 개최하였다.



현산문화제

주소 : 현산문화제행사장(전통민속체험장)

◆ 일시 : 2012.6.9(토) 10:00~

◆ 참석자 : 양고 4H 회원 40명



체험학습보고서

2012/5/30(수)

● 진시원 (1-1)

장 소 현산문화제
제 목 전통문화체험을 하고 나서

4H로 현산문화제 우리나라 전통문화체험을 했다. 체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의 아는 전통문화였지만 새로 알게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도 있었다. 그중에는 목침빠기가 있었는데 참 흥미로운 전통놀이였다. 게임방법은 목베개를 중앙선에 맞추어 놓고 손의 압력으로 줄다리기처럼 자기자신 쪽으로 목베

개를 가져오는 게임이다. 목베개체험을 끝내고 영현, 병현과 제기차기를 하였다. 제기차기를 하는데 영현이만 10개, 병현이와 나는 3개밖에 못했다.



느 낱 점 우리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인 것 같았고 새로운 우리문화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아쉬운점 체험이 많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다.

● 장장규 (1-4)

장 소 현산문화제(남대천둔지)

제 목 닭싸움체험 등 민속문화체험

제34회 현산문화제 닭싸움체험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여 친구들과 함께 체험을 하였다. 그리고 처음 보는 것도 있었는데 목침뺏기 경기라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한손을 이용해서 목침을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경기였는데 악력이 센 사람은 이 경기에서 쉽게 이겼다. 목침뺏기 체험도 마친 후 한궁경기체험을 하러 갔다. 한궁은 다트 처럼 생긴 것이었는데 그것을 점수판에 던져서 박히는 곳의 점수로 점수를 내면 된다. 다음은 윷놀이를 하러 갔다.

윷놀이는 정말 익숙한 우리 민속문화 중 하나이다. 요즘에는 명절때도 휴대폰 게임을 하느라 정말 오랜만에 접하는 윷놀이

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옷들이 판 밖으로 떨어지기도 해서 난감하였다.

느 낀 점

우리나라 민속문화가 소멸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문화체험을 한 후 이렇게 재미있는 우리민속문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꼭 전해 주고 싶다.



아쉬운점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자꾸 땀이 나서 덜 움직이게 됐다.

양양향교

주소 :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297

◆ 일시 : 2012.7.11(수) 14:20~

◆ 참석자 : 양고 2학년 100명



양양향교(강원도문화재자료 제105호)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고려 충혜왕때 처음 지은 것으로 보이며 조선 인조 4년 크게 넓히고 숙종 8년에는 임천리로 옮겨지었다. 양양향교는 중국의 공자·안자·증자·자사·맹자·정자·주자와 우리나라 설총·최치원·정몽주·이항·이이 등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현재는 유학 교육의 기능은 폐지되고 단지 성현을 제사지내는 의식인 석전제(釋奠祭)만 매년 공자의 탄신일인 음력 8월 27일에 거행하고 있다.



양양향교

주소 :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297

◆ 일시 : 2012.7.18(수) 14:20~

◆ 참석자 : 양고 1학년 100명



체험학습보고서

2012/7/18(수)

● 박윤동 (1-2)

장 소 양양향교

제 목 양양향교를 다녀와서

양양향교까지 걸어가서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문앞에서(입구)부터 설명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문화원 얘기부터 시작하여 들어가면서 입구의 문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그 문은 '마음을 씻고 들어가라' 라는 뜻이라고 하셨다. 향교안에 들어서서는 계단을 들어갈때는 오른쪽으로 들어가며 나올때는 왼쪽

계단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다. 향교에서 삼강오륜 등 유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다가 들은 것 중 놀라웠던 것은 향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군대를 면제해준다는 것이었다. 건물내에는 향교를 통해 중앙에 진출하셨던 분들의 사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조상님들과 향교건물을 보면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느꼈다.

느 낀 점 그때 당시에도 지금의 우리처럼 중앙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했었다는 것을 아니 새로웠다. 또한 친구들과 우리의 고장의 명소를 보니 기뻐다.

아쉬운점 비가 많이 와서 강연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 이용준 (1-2)

장 소 양양향교

제 목 양양향교체험

우리 고향 양양의 전통중 하나인 향교의 제례는 양양의 약 200여명의 유신자들에 의해서 공자선생님과 그의 제자 약 40여명을 기리며 1년에 2회의 제사를 지내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 향교이다. 양양향교는 고려 충혜왕17년에 안축이라는 사람이 구교리에 설립하였다. 그 뒤 조선 숙종때 지금의 향교로 위치하게 되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등이 있다. 정원이 70명이었고 그 뒤에 기능은 교육적 기능보단 분향을 하는 기능만 있게 되었다.

느 낀 점 그동안 귀기울여 듣지 않아 많이 몰랐지만 이번 기회로 많은

것을 알게 되어 향교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겼다.
아쉬운점 비가 많이 와서 향교 여러 곳을 둘러 볼 수가 없었다.

● 황광규 (1-4)

장 소 양양향교

제 목 양양향교 방문기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
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
다. 그리고 교육과 교화
를 위해 세운 교육기관이
다. 고려 충혜왕 때 처음
지은 것으로 보여진다.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교육기능은 없어지고
제사기능만 남아있다.

느 낀 점 옛날에 우리 양양에서도 이런 귀중한 문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
실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아쉬운점 옛날 향교에 다니던 사람들의 흔적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 정서르 (1-2)

장 소 양양향교

제 목 양양의 오래된 문화유산 양양향교

양양에는 오래된 문화유산이 여러개 있다. 진전사지3층석탑, 오색약수터 등 그중에 양양향교는 유명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이다. 지금은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그 뜻이 변하였는데 원래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의 5성과 우리나라의 최치원, 이황을 비롯한 18현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시기상으로는 음력2월말과 8월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양양의 유명하신 200분이 제사에 참여하시는 것 같으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느 낀 점 조금 유익했지만 육체적으로 피로함이 너무 강했다.

아쉬운점 문화재를 보러 가는 날이면 매번 비가 와서 아쉬웠다.

낙산사

주소 :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 일시 : 2012.9.12(수) 14:20~

◇ 참석자 : 양고 2학년 110명



낙산사(사적 제495호)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의 진신이 바닷가의 바위굴 안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 굴 속에서 예불하던 중 동해용왕이 수정으로 만든 염주를 주면서 “굴 위의 두 대나무가 솟아난 곳이 나의 이마이다. 거기에 불전을 짓고 상을 봉안하라”고 하여 그 자리에 사찰을 창건하고 낙산사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 의상대(강원유형문화재 제4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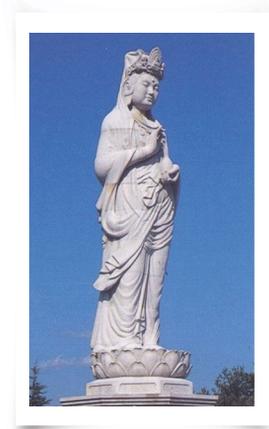
송강정철(1536~1593)의 <관동별곡>에 소개된 관동팔경 가운데 하나로 동해 일출경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의상대

2. 낙산사 해수관음상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관음상은 1977년 11월 점안 되었으며 크기는 높이 16m, 둘레 3.3m입니다. 대좌 위에 활짝 핀 연꽃 위에 서 있는데 왼손에는 감로수 병을 받쳐들고 오른손은 수인을 짓고 있습니다. 대좌는 앞부분에 쌍룡상, 양 옆에는 사천 왕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3. 낙산사 별꽃무늬 담장

(강원유형문화재 제34호)

낙산사 법당인 원통보전의 둘레를 사각으로 에워싸고 있는 담장입니다. 조선 세조(재위 1455~1468)가 낙산사를 고쳐 지을 때, 처음 이 담장을 지었는데 대부분 터만 남아 있어 최근에 연결, 보수하였습니다.



낙산사 담장



낙산사 흥예문

4. 낙산사 흥예문

(강원유형문화재 제33호)

세조 12년(1466년) 왕이 직접 낙산사에 행차한 것을 기념키 위해 사찰의 입구에 만든 무지개 모양의 석조문으로 세조의 명에 의해 당시 도내 소속 26개 고을에서 석재를 하나씩 추렴해서 쌓았다고 합니다.



칠층석탑

5. 낙산사칠층석탑(보물제499호)

낙산사 칠층석탑은 원래 3층이었던 것을 조선 세조12년(1466년)에 현재와 같이 7층으로 다시 건조한 조선 초기 다층 석탑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양식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문화재이다.



건칠관음보살좌상

6.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보물제1362호)

낙산사 원통보전에 봉안되어 있던 건칠불상으로 2005년 대화재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었다. 보관은 고대 이래의 형식에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보관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각

부분의 비례가 좋고 특히 상호(相互)가 빼어나다. (불상의 크기 112.0×76.0cm)

7. 낙산사 공중사리탑 (강원유형문화재 제75호)

숙종 18년(1692년)에 조성된 것으로 불사리를 장엄한 조선시대의 부도이다. 2006년 이 사리탑을 보수하던 중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어 함께 보물로 지정되었다.



공중사리탑

체험학습보고서

2012/9/12(수)

● 윤효식 (2-1)

장 소 낙산사
제 목 낙산사를 다녀와서
낙산사를 와서 먼저 낙산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설명을 듣

고 흥예문 안으로 들어와서 복원된 낙산사 동종을 보았다. 예전에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지만 다시 복원된 모습을 보고 위안을 삼았다. 다음은 낙산사에 대응전인 원통보전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낙산사7층석탑을 보았다. 그리고 낙산사에서 가장 최근 지어진 해수관음상까지 올라가서 그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양양8경이고 정철에 관동별곡에도 나온 의상대에 와서 경치를 감상하고 왜 양양8경인지 관동별곡에 왜 나오지 실감할 수 있었다.

느 낀 점 초등학교때부터 자주 왔었지만 이번에는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구경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와는 다르게 깊이 있게 볼 수 있었다.

아쉬운점 의상대는 일출이 유명하지만 가까운 곳에 살면서 한번도 의상대의 일출을 본적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다음에는 의상대의 일출을 보러 가보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 김민구 (2-2)

장 소 낙산사
제 목 계속 오게 되는 낙산사
봉사 자율 시간에 훌륭한 관광지 낙산사에 견학을 가기로 하였다.
낙산사에 도착해 후문에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낙산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거의 매년 보게 되는 낙산사 오면서도 낙산사에 유래 각 건물

에 명칭 등을 잘 알지 못하였는데 이번 기회로 각 건물의 명칭을 알게 되고 그 건물에 유래 등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는데 이번일을 계기로 잘 알게되어 우리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좀더 많은 지식을 얻었다는 뿌듯함이 생겼다. 2005년 낙산사 산불로 우리나라에 보물이 불타서 보물이 소멸했다는 것이 많이 아쉽고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럼이 생겼다. 이제 부턴 좀더 우리지역 문화재를 잘 가꿔야겠다.

느 낀 점

올때마다 느끼는 기분이 모두 다르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오는 것이니까 놀러오는 것이고 중학교때에는 매년 오는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는 수행평가 때문에 왔을때랑 다르게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

아쉬운점

2005년 낙산사 산불로 보물 동종이 탄 것에 우리지역 문화재인데 우리가 지키기 못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 신동국 (2-2)

장 소 낙산사

제 목 낙산사의 미학

낙산사의 역사깊고 다양한 유물들을 보게 되었다. 일부 환경과 특정 유물은 불에 의해 훼손되어 새로이 재건되어 전시되었다.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종교활동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는 불교적 유물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에 유지되어 체험 학습을 간 우리를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낙산사에 와 사진

을 찍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종교 활동을 해 우리 민족의 과거생활상과 다름없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다.

느 낀 점

다양하며 아름다운 낙산사의 풍경과 유물들을 보고서 우리의 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화재로 인해 훼손된 유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송이축제

장소 : 송이축제 체험장

◆ 일시 : 2012.10.4(목) 15:00~

◆ 참석자 : 양고 2학년 100명



송이축제

- 축제일시 : 매년 9월말~10월초(2012.10.3~10.7)
- 축제장소 : 양양 남대천둔치 및 송이산지
- 축제문의 : 양양군청문화관광과033-670-2723~4



‘양양송이축제’는 양양송이의 우수성을 소재로 하여 각종의 현장체험을 통해 송이의 생육환경을 참가자들이 직접 경험으로써 청정지역인 양양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동시에 인식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매년 괄목할 만큼의 성장을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2009년도에 제13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축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신활력 지역으로 송이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송이가 양양의 중심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어축제

장소 : 연어축제 체험장

◆ 일시 : 2012.10.27(토) 09:00~

◆ 참석자 : 양고 2학년 60명



연어축제

- 축제일시 : 매년 10월중순 (2012. 10. 20 ~ 10. 28)
- 축제장소 : 양양 남대천둔치
- 축제문의 :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033-670-2723/2207



남대천에서 부화되어 바다로 나간 어린 연어가 북태평양 및 베링해를 거친 후 자라서 알을 낳기 위해 되돌아오는 데는 약 3~5년 정도가 걸린다. 우리나라에는 연어가 회귀하는 하천이 18개정도이며 이중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가 전체의 약 70%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매년 대청봉과 백두대간의 산봉우리들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남대천으로 연어들의 귀향 행렬이 이어지고 연간 약 18,000마리 정도의 연어가 남대천으로 올라온다.

1996년 제1회 연어축제를 개최한 이후 2012년 제16회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왔으나, 2002년도에는 양양지역에 커다란 피해를 준 '태풍루사'로 인하여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양양지방 역사와 문화유적 탐방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이규대 교수

나는 영동지방 역사문화유적 답사를 계획할 때 세 개의 문화권으로 구분하곤 한다. 중부문화권, 남부문화권, 북부문화권으로 구분한다. 중부문화권은 강릉지방을 중심으로 오대산을 포함하는 권역으로 보고, 남부문화권은 동해·삼척지방을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북부문화권은 양양·속초·고성지방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권역이다.

세 개의 문화권으로 구분하지만, 이것은 답사일정상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영동지역은 동해 바다와 맞닿은 해안과 평야지대에 촌락이 형성되면서 이곳 주민들의 생활문화가 서쪽의 태백준령으로 이어지는 형상의 문화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보는 것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 권역으로 구분지어 보면 미세하지만 나름대로의 특성

을 짚어볼 수도 있다.

지방마다 그 도시를 관향으로 삼는 성씨가 있고, 지방마다 읍성과 관청·향교와 서원 등과 같이 지방마다 갖추면서 개별적인 운영질서를 확립하면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개성을 구축해 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언어 생활, 신앙생활, 가옥구조 등 가장 기초적인 생활 일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듯하다.

이렇듯 세 개의 권역은 나름 독특한 개성을 가지면서 또한 영동지역의 보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은 각기 자신들의 삶의 역정에서 구축되는 것으로 보면, 생활의 궤적은 그 자체로 지방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사의 연구는 여전히 과제로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편찬된 군사·시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금년 봄에도 영동지역 북부문화권을 답사하였다. 학생들과 함께한 이번 답사는 춘추로 이루어지는 정기 답사에서 번번이 누락되는 영동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이른 아침 버스 편으로 강릉을 출발하여 북으로 들어가면서 오산리선사유적지, 동해신묘, 낙산사, 진전사지, 선림원지, 그리고 속초의 아바이 마을을 돌아서 오는 코스로 운영되었다. 물론 양양지방의 향·포구를 비롯하여 향교, 서원, 읍성, 독립운동유적지, 현산 공원 등을 염두에 두었지만 일정상 또 다시 아쉬움을 남겨야만 했다.



이번 답사 코스 중 오산리 선사유적지와 박물관에서는 전문학예사와 큐레이터

(Curator)의 역할에 비중을 두었다. 박물관에 들어 온 유물들을 용이하면서 규모있게 전시하기 위한 능력이라는데 포인트를 맞추어 현장을 경험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는 세칭 아바이 순대로 점식을 하였다. 음식문화에 서린 현대사회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가는 생활을 들추어 보는데 역점을 두었다. 글로벌화와 전문화를 지향하는 시대추세에서 지방사회의 역사와 문화가 생활현장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되어가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겠다.

양양의 동해신묘, 동해의 신을 모시고 국가 조정이 주체가 되어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 이 제사는 동해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업과 안위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 조정의 통치권이 동해 바다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구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려시대에서 시작되어 조선조로 이어지는 긴 역사를 갖는 문화유적지이다.

동해신묘의 제사운영을 두고 보면, 고려와 조선시대의 영상은 서로 다른 양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가 유교를 지도이념으로 삼았으니 국가 의례로서 동해신묘의 제사영상도 응당 유교적 의례절차의 구현이었을 것이다. 동일한 시각에서 고려시대 영상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당대의 국가 지도이념이었던 불교에 적합한 의례절차를 지향하였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렇듯 동해신묘의 제례는 국가 지도이념의 구현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보면 여말선초에 이 동해신묘 제사를 둘러싸고 중앙에서 온 사신과 이 고을의 관원들 간에 야기된 갈등, 그 갈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 고을 관원이 사직한 사태가 야기된 것으로 적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그동안 고려시대의 의례절차가 관행화되어 온 상황에서 이것을 부정하고 신왕조의 유교적 의례를 이입하려는 조선 조정의 입지가 관철되면서 야기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동해신묘는 시대적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 제사 공간이다.

이 제사는 천년의 역사를 가지며, 국가 지도이념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구현하는 구심체로서 기능해 왔다. 그러기에 우리시대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고 본다. 지방축제와 문화콘텐츠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대의 문화자산으로 활용가치는 주목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동해신묘의 제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등위로 중사에 해당한다. 물론 서해신묘와 남해신묘가 모두 이 등위에 해당하며, 동해신묘는 동해 전역을 포괄하는 제사 처로서 양양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모습은 조금 초라한 행색으로 비춰지는 실정으로 단정하게 갖추어진 모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전근대사회에서 이 제사가 갖는 광역성과 등위에 비추어서도 절실하거나와 오늘날 디지털 문화의 시대에서 동해신묘는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개발을 위한 아직은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곧 주목받게 될 아이콘이기에 절실한 것이다. 이 아이콘이 양양지방 역사와 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낙산사와 진전사지, 그리고 선림원지에서는 사회변혁 의식에 중점을 두었다. 창건시기와 연기 설화는 서로 다르지만 의상대사와 도의선사의 행적에 담겨진 사회변혁의 구현이라는 사회적 의미이다. 의상 스님은 신라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살다 가셨다. 이 시기 의상 스님에 의한 관음도량으로서 낙산사의 개창은 그 자체로 지방사회와 지방민들을 의식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동안의 불교를 중앙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의상 스님의 낙산사 창건은 불교문화의 지방화이요 대중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의상 스님이 당대 불교문화의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변혁의 의식이라고 할 것이다.

진전사지와 선림원지에서도 사회변혁 의식은 감지된다. 도의선사의 진전사 개창은 경주에서의 전도활동을 포기한 채 은둔하면서 비롯된다. 도의선사의 활동 시기는 통일신라가 말엽으로 접어드는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는

이 시기 불교계의 혁신을 위해 선종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선종 수용의 초기 단계에서 그의 전법활동은 수도인 경주에서 시작하였으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그는 양양으로 은둔하여 진전사를 개창하고 제자 스님들을 육성하여 법맥을 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른바 그의 사회변혁의 의지가 이곳 양양에서 꽃피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양양지방의 낙산사와 진전사, 이곳에 깃든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법맥은 지금



도 면면히 계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음도량으로서 낙산사는 천년을 상회하는 세월동안 사부대중을 제도하는 웅장한 범종소리가 이어진다. 진전사의 문도들은 양양을 떠났다. 도의, 염거, 체징으로 이어지던 진전사의 문도들은 전남 장흥 가지산으로 이전하여 보림사를 열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가지산문이 형성되면서 전법활동은 지금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양양지방에 깃든 사회변혁 의식, 이로서 낙산사·진전사지·선림원지는 이 지방을 대표하는 유적일 수 있으며,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을 고양할 토대로서 사회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낙산사의 관음보살과 진전사지 삼층석탑과 부도탑, 선림원지의 흥각선사비와 부도탑은 그 조각사적 의미도 주목되려니와 그 사회사적 의미로 하여 더욱 빛이 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해 바다를 포괄하는 동해신묘의 제사의례에 담긴 애민정신은 또한 저들의 사회변혁 의미와 별개가 아닐 것이다. 이제 이 변혁 의식을 양양지방의 생활문화 속에 담아서 시대정신으로 구현해 가려는 노력은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memo

memo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향토사 여행

인 쇠 : 2012년 12월 6일

발행인 : 양양문화원장 양 동 창

주 소 :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114-5

전 화 : 033) 671-8762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향토사 여행

